"전남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봄나들이' 어때요"

도, 3월 추천 관광지 4곳 선정 강진 백운동원림·목포 시화골목 "자연경관과 전통 유산 잘 보존"

전남도는 케이(K)-콘텐츠 촬영지로 급부상한 강진 백운동원림, 목포 시화골목, 보성 열화정, 순천 드라마촬영장을 3월 봄나들이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강진 백운동원림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환혼'의 촬영지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 홍보 포스터와 여러 장면의 배경이 된 왕대나무숲은 백운동원림의 인기장소다. 그림 같은 풍광은 드라마 '환혼'의 판타지 로맨스를 신비롭게 연출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목포 서산동 시화골목 일대는 1970~80년대 건물이 남아 있는 복고풍(레트로) 여행지로 목포 여행 필수 코스다. 시화골목 입구에 위치한 '연희네 슈퍼'는 영화 '1987' 촬영지로 유명하다. 촬영 당시 모습이 남아 있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벽화가 그려진 골목을 따라 오르면 코발트빛 지붕이 층층이 겹친 마을 모습과 다도해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보성 열화정은 주변 숲을 살려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최근 방영했던 인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남녀 주인공의 궁중 로맨스가 아름답게 연출돼 드라마 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 후진 양성을 위해 지은 열화정은 중요민속문화재다. 전통 한옥양식 대문과 아담한 연못, 정원에 심은 벚나무, 목련나무는 주변 숲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해 드라마·영화 현지 촬영(로케이션) 담당자에게 꾸준히 섭외되고 있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1960~80년대 서울 변두리, 달동네, 순천읍내를 재현한 세트장이다. 드라마 '파친코',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제빵왕 김탁구' 등 70여 편의 영상 작품을 촬영한 곳이다. 옛날 교복 체험, 고고장 등 복고 분위기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인근 송광사는 최근 상영한 '헤어질 결심' 촬영지로, 영화가 흥행하면서 찾는 관광객이 늘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 커플이 빗속 데이트를 즐기는 낭만적 배경 덕분에 '헤어질 결심 촬영지 투어'라는 새로운 전남 여행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유산이 잘 보존돼 있어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며 "봄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전남에서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인생의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동력 구축

국비 3억5000만원 확보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숙박·관광·쇼핑 등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전국에 7곳이 있다. 광주시는 2018년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상무지구 일대가 지정됐다.

광주시는 (재)광주관광재단,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업체계를 구축, 국제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5년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는 전년보다 경쟁지역이 증가(5→7곳)했는데도 8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광주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제회의복합지구 생태계 구축 △스마트 앤 펀(Smart & Fun) 광주마이스파크 조성 △국제회의복합지구 성장 기반 확충 △광주 마이스(MICE)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국제회의복합지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적시설 관계자, 마이스 참가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캠페인을 개최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3D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구현)을 구축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방문객을 지역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한 마이스 특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출장에서 여행으로' 유도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통합 안내 키오스크를 집적시설과 주요 교통시설에 설치, 참가자 편의를 증진하는 등 재미있고 스마트한 마이스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이스 행사 성과분석을 위한 방문객 현황분석 시스템 설치,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문 회의시설 디지털화, 광주 마이스 인재 교육과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마이스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도시과장은 "광주를 국제회의, 대규모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의 중심이자 글로벌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도시로 육성해 지역경제에 신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및 QnA

Q. 당선인이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당선인사를 하고 음료수 2박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A.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일 후 당선된 것에 대해 선거인에게 축하나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 ·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
▶주체
– 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
–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
▶제한기간 : 답례금지 행위는 상시제한됨.
▶금지내용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해 축하 ·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 ·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全南日報 《공동기획》
▶ 전남선관위에서 12회에 걸쳐 제공하는 기획연재 보도입니다.

일상속 생활문화공간 '아트벙커' 광주시, 20여곳 조성·지원한다

광주시가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 공간인 '아트벙커'를 조성·지원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생활문화 아트벙커는 공공·민간의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강습·공연·전시·연습·발표 등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를 통해 문화공간 20여 곳을 조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그 공간을 지역과 공유할 의지가 있는 민간단체 또는 주민모임(3인 이상)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1곳당 1000만 원 안팎의 공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소규모 수선비 등을 지원받는다.

5개 자치구 중 동·남·북·광산구는 2일부터, 서구는 15일부터 공모할 예정이다. 공간소재지 자치구 사업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현장확인·면접심사 등을 통해 4월 초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아트벙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수 기자

학교 납품 식자재 점검 광주 북구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이 2일 신학기를 맞아 관내 학교에 공급할 딸기 등 식자재를 점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신규사업 60건 발굴… 국비 확보 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추진

광주시가 신규사업 60건을 발굴해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에 나선다.

광주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2024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효율적 국비 확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개최한 국비확보 사전 전략회의를 토대로 광주현안 해결과 기회도시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발굴된 신규사업 60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새로 발굴된 사업은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총 1조500억원) △주행조건별 안정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센서검증기술 개발(총 290억원) △미래차 전환 중·소부품기업 역량 강화(총 135억 원) △미래자동차 연구개발(R&D) 특화 전문인력 양성(총 460억원) △광주 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1000억원 규모)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Y-프로젝트 연계사업(총 810억 원)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총 458억 원) △세계적 미술축제도시 조성(총 691억 원) △G-콘텐츠산업 경제성장축 육성(총 100억 원) 등이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는 △제3순환 고속도로망 도로개설(총 1조521억원) △대촌~나주금천 광역도로 개설(총 448억원)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총 1조 2146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전문가 그룹,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비확보전담팀(TF팀)을 활성화해 대규모 국비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보완해 4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재정투자심사·연구개발(R&D)사업 과학기술심의 등 국비지원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액 국비사업과 국비 보조율이 높은 양질의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지방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비 확보과정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9~11월이 국회와의 시간이라면, 지금은 중앙부처와의 시간이다. 미리 소관 중앙부처와 상임위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방문해 중앙부처 예산에 우선적으로 광주시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정부안 확정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모니터링,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기재부·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챗GPT 활용 전담반 구성 민원서비스 개선

전남도가 챗GPT를 활용해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챗GPT 활용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는 3일 챗GPT 활용 전담반 첫 회의를 열어 올바른 활용 방법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공직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도정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도정 엠지(MZ)세대, 민원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기술에 더욱 친숙한 도정 엠지세대가 챗GPT를 활용한 도정 민원 서비스 개선에 도전토록 한 것.

전담반은 챗GPT를 이용해 보고 부서에 확대 전파하며 공무원이 최첨단 기술을 민원업무 서비스에 접목하는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한다.

진화하는 인공지능기술을 도정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부서별 유료 계정을 생성해 전 직원이 챗GPT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대외 홍보 자료 작성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 수집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에 적용 가능한 업무 발굴을 위해 내부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 의견수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